“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로 증언하며, 소망을 새롭게”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회원 교회를 위한 예배 자료

이 예배는 2026 년 종교개혁주일의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의, 순례, 탄식, 소망이라는 언어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총회의 주제인 “인내로 증언하라는 초대”와, 40 주년을 맞은 벨하 신앙고백이 일치와 화해와 정의를 향해 이어 온 변함없는 증언에 응답합니다.

각 교회는 이 예배 순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각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래에 제시된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전 세계 교회 커뮤니언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음악 가운데, 움직임, 정의, 소망, 저항,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음악을 사용합니다.

제안: 세계 교회 커뮤니언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 기악 음악

새로운 분위기로의 전환

예배 공간은 은은한 조명을 유지합니다. 음악이 멈춥니다. 주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 군중의 웅성거림
- 다양한 언어로 들려오는 목소리
- 대화하는 소리
- 기도하는 소리
- 멀리서 들려오는 찬양
- 시장과 거리, 사원과 시위 현장의 소리

이 소리는 인간의 모습과 다양성, 혼란, 그리고 갈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씩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희미하게.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하고 강하게 들립니다.

군중의 소리는 서서히 잦아듭니다. 마침내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만 남습니다.
각 망치 소리가 더욱 깊은 울림을 남기고, 그 주변에는 더욱 짙은 침묵이 자리하게 됩니다.
메아리처럼 울리는 망치 소리만 남아 있을 때, 다음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시로 여는 예배

(예배 공간의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낭독함)

한 사람이 감히 문을 두드렸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였다.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두려움에 맞서는 소리.
침묵에 맞서는 소리.
복음은 결코 닫힌 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은혜로(Sola gratia)…
공로가 긍휼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권력이 신뢰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을 때.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수많은 인간의 목소리가 살아 계신 말씀의 소리를 잠재우려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다른 주인들이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려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자아와 돈과 야망이 거룩한 자리를 차지하려 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식탁들이 마련되었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들을 위하여.
도시 한가운데서 나누어진 떡을 통하여,
예배와 정의가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도록.
사람들의 언어로 울려 퍼지는 노래를 통하여,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 가운데 믿음이 숨 쉬도록.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도시 자체가 연약한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완고할 만큼 굳센 꿈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
아직도 우리를 갈라놓는 벽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처 입은 교회들.
버려진 사람들.
침묵을 강요당한 목소리들.
비어 있는 식탁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된 증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폭력.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전히 개혁을 일으키신다.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
은혜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
함께하는 식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

오늘 우리는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그 망치 소리를 듣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현실이라는 벽에
우리의 신앙고백을 담대히 못 박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침묵)

함께 드리는 예배로의 초대

인도자:
개혁교회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권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중: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도자: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 제네바 시편찬송가의 시편 100 편
  "All People That on Earth Do Dwell (Old Hundredth)"
  (먼저 전통적인 선율로, 그 다음 더 현대적인 스타일로 이어짐)

시작 기도

바람과 불의 하나님,
혼돈 위를 움직이시는 숨결이시며,
닫힌 문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에 지금도 울려 퍼지는 음성이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때에도
기꺼이 대가를 감수하는 제자도의 길로 당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주께서는 예언자와 시인, 개혁자들과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일깨우시며,

그들은 진실과 긍휼과 소망으로 침묵의 벽을 담대히 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아픔과 기억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때 망치 소리가 나무로 된 문 위에 울려 퍼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의 무관심을 깨뜨리소서.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깨뜨리소서.
당신의 백성을 갈라놓는 모든 벽을 무너뜨리소서.
창조세계를 상처 입히는 벽을 무너뜨리소서.
불의를 보호하는 벽을 무너뜨리소서.
연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벽을 무너뜨리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개혁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개혁하여 주소서.
예배가 기도가 아닌 공연이 되어버릴 때,
영혼 없는 단순한 반복이 되어버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여 주소서.
교회가 용기보다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신학을 개혁하여 주소서.
신학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상처 입은 자를 잊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 주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절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소서.
희망이 너무 연약하게 느껴질 때, 복음이 가진 굳센 소망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를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고 대가를 감수하는 제자도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제도적 생존을 넘어,
정의가 숨 쉬고 교제가 꽃피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나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할 때,
겸손한 마음과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긍휼을 품고 진리를 추구하는 인내를 허락하시며,
정의만이 아니라 회복을 구하게 하시고
역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 있는 증언이 되게 하소서:
함께 나누는 떡,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존엄을 지키는 삶,
소중히 여겨지는 창조세계, 그리고 몸소 실천하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 “God of Grace and God of Glory” + “Siyahamba” 메들리

참회의 기도

(예배 공간의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낭독함)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령의 움직이심을 거부했는지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신뢰의 길로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연대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증언에 대가가 따를 때에도 우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죄를 고백합니다:

식민주의와 인종차별, 배제와 폭력, 가부장제와 탐욕이 남긴 상처,
그리고 자유하게 하기보다 지배하기 위해
신앙을 너무 자주 이용해 온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자주 소망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우리는 잔혹한 체제를 용인하고 심지어 조장하면서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화합을 외쳐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신학이 무관심해질 때,
우리의 예배가 고통과 멀어질 때,
우리의 제도가 불의보다 변화와 쇠퇴를 더 두려워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개혁하여 주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소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치유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존엄이 꽃피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소서.

(묵상 기도…)

아멘.

- **참회의 찬송**

사죄의 선언

인도자: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는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넓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새로워졌으며, 다시 언약의 공동체로 파송됩니다.

회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

인도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회중:
또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각자의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 **적절한 찬송**

성경 봉독

제안 본문:

- 에스겔 37:1 – 14
- 시편 46
- 로마서 8:14 – 27
- 고린도후서 4:7 – 10, 16 – 18
- 히브리서 12:1 – 2
- 요한복음 16:12 – 15
- 누가복음 24:13–35

설교 *(세 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대화하는 형식을 제안함)*

제안 주제:

- 두려움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인내로 증언하기
- 우리가 처한 혼란을 정직하게 인정하기

- 정의와 교제를 통해 소망을 새롭게 하기

- **주제곡** *(현재 작업 중)*

함께하는 상징적 참여

예배 중 한 순간(설교 후 또는 성찬식 전에), 회중은 상징적 참여에 초대됩니다.

준비

상징적인 "벽"(가능하다면 예배 시작 부분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할 수 있음)

- *나무 판자, 낡은 문, 혹은 비텐베르크의 문을 연상시키는 간단한 구조물.*

미리 작은 종이나 카드를 준비해 둡니다.

초대

인도자:
수세기 전,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담대히 이름 붙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분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Thesis"를 적어 주십시오.
— 짧은 문장으로 된 고백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으며, 꿈이나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 항의의 외침일 수도 있고,

- 소망일 수도 있으며,
- 요청일 수도 있고,
- 고백일 수도 있고,
- 친교와 연대를 위한 제안일 수도 있으며,
- 정의를 향한 한마디일 수도 있고,
- 평화를 위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작성을 마친 후, 앞으로 나와 이 벽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못 박아” 주십시오.

회중이 앞으로 나오는 동안 부드럽게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 또는 묵상적인 기악 음악이 연주될 수 있습니다.

- *상징적 참여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이 연주됨*

회중의 응답 (예시)

모든 사람이 참여를 마친 후:

다 함께:
지혜의 영이시여, 우리가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 걸어가시며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신 곳을 보게 하소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용기를 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이루소서.
무관심이 있는 곳에 긍휼을 베푸소서.
죽음이 있는 곳에 소망을 일으켜 주소서.

아멘.

신앙고백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혼돈 위를 움직이는 숨결이시며,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제국보다 깊은 정의이시며,
어떤 감옥도 침묵시킬 수 없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 태어나셨고,
난민으로서 피난길에 오르셨으며,
배제된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폭력적인 권력들을 뒤흔드셨으며,
지배의 논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두려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만물을 화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침없이 역사하시며
폐허가 된 도시와 난민 캠프,
상처 입은 교회와 병든 땅,
그리고 지친 마음들 가운데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은 절망을 거부하십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부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다양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개혁하시고, 세상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특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억압을 축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잔혹함 앞에서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곁에 서는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일치의 표징이며,
화해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살아갈 용기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때에,
우리는 정의를 동반한 평화를 선포하며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화해를 추구하겠습니다.

증오의 때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굶주림의 때에,
우리는 떡을 나누고 탐욕에 저항하겠습니다.

강제이주의 때에,
우리는 식탁을 넓히고 두려움이 만든 국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인종차별과 배제의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존엄을 지닌 존재임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때에,
우리는 치유를 갈망하며 신음하는 이 땅과 함께 서겠습니다.

절망의 때에,
우리는 굳건히 소망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개혁하십니다.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증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치와 화해와 정의와 교제와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아멘.

찬양

- “Perplexed, not crushed” *(지난 실행위원회의 주제곡)*

중보기도

생명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점령, 강제이주와 두려움으로 폐허가 된 곳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엄과 자유를 빼앗긴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력에 의해 이름조차 잊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정의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주자와 난민,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금되거나, 거부당하거나, 범죄자로 낙인찍힌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교회가 장벽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환대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타는 숲과 오염된 물, 사라져 가는 생물종과 무너져 가는 기후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세계가 소유물이 아니라 선물임을 다시금 가르쳐 주소서.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증언하는 일이 위험한 곳에서, 공동체가 분열된 곳에서,
지도자들이 지쳐 있는 곳에서, 소망이 연약하게 느껴지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이 신실함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용기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모인 커뮤니언을 위해 기도합니다.
투쟁과 해방의 기억을 위해, 저항을 통해 얻은 지혜를 위해,
화해와 정의를 위해 지금도 힘써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다시금 소망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 있음을 배우게 하소서.

생명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온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침묵)

찬양

- “Pelas dores deste mundo”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봉헌

초대:
우리는 우리의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을, 우리의 긍휼을,
불의에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성찬식

성찬으로의 초대와 기도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다른 이야기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식탁에는 낯선 이도 없고, 첫째 자리도, 둘째 자리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이 건너지 못할 국경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당신의 백성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식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떡을 나누고, 진리를 말하며, 존엄을 지키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 식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당신의 나라의 표징으로 삼아 주소서.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고, 화해가 가능해지며,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여정 속의 소망이 이 식탁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되게 하시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식탁에 환영받는 그날까지
인내로 증언하며, 소망을 새롭게 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평화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 “Santo, Santo, Santo” (2025 년 총회 예배서, 308 쪽)

제정의 말씀

(누가복음 22:14 – 2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을 드신 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으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침묵)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이 갈라놓은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 환영받습니다.
이곳에서는 은혜가 특권보다 강하고, 화해가 분열보다 강하며,
정의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이곳에서 성령은 모든 민족과 모든 곳에서 온 이들을 하나의 교회로 계속해서 모으시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화해하게 하시는 사랑의 살아 있는 증언이 되게 하십니다.

떡을 뗌

(회중 가운데 몇 사람이—어린이와 어른,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지닌 이들이—식탁을 둘러싸고 모여, 함께 떡을 손에 듬)

인도자:
우리가 떼는 이 떡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이 식탁을 소유하지 않으며, 아무도 이 식탁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며, 함께 받고 나누게 하십니다.

*(식탁을 둘러선 모든 이들이 함께 떡을 뗌.
여러 개의 떡이 떼어지는 소리가 침묵을 가득 채우도록 잠시 기다림)*

다 함께:
하나의 떡이 있기에, 많은 이들이 한 몸이 되며, 우리 모두가 그 한 떡에 함께 참여합니다.

잔을 나눔

(회중 가운데 몇 사람이 함께 잔을 들어 올림)

인도자:
아무도 혼자 마시지 않습니다.
잔은 손에서 손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낯선 이가 이웃이 되고, 이웃이 벗이 되며, 벗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잔을 함께 들어 올림)

다 함께:
우리는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성찬식 동안 음악이 연주됨)

성찬 후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나눈 식탁과, 많은 손이 떼어 나눈 떡, 한 백성이 함께 나눈 잔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는 아무도 홀로 걷지 않으며, 아무도 홀로 믿지 않으며,
아무도 홀로 양식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셨으며,
단순히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떼어 먹은 이 떡이, 우리로 하여금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잔이, 우리를 화해시키고, 환대하며,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를 보내 주사, 인내로 증언하며, 소망을 새롭게 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식탁을 넓히고, 함께 굶주린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되고,
외로운 이들의 동반자가 되며, 우리 가운데 계신 당신의 나라를 보여 주는 표징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 “Until all are fed” (2025 년 총회 예배서, 314 쪽)

축도

이제 가십시오,
오래된 확신의 수호자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소망의 증인으로 가십시오.

절망에 맞서는 공동체로서 나아가십시오.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용기를 내어 가십시오.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다정함을 품고 가십시오.
증언에 대가가 따를 때에도 굳건히 인내하며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서 계신 곳에 함께 서기 위해 가십시오.
가난한 이들 곁에, 억울한 이들 곁에, 배제된 이들 곁에, 신음하는 이 땅 곁에 서십시오.

그리고 혼란과 막막함이 마음을 찾아올 때에도,
절망이 결코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정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시기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함께 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존엄이 꽃피며,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제안 찬송:

- “Oholeya Jesus ikumwifi” (나미비아)
- “The Summons”
- “Canticle of the Turning”

후주